

❖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의 철학

윤지당이 살았던 18세기의 조선 성리학은 16세기 퇴계와 율곡 시대의 성리학이 못다한 숙제를 마무리지으려 한 치열한 노력의 소산이다. 그리고 윤지당은 가장 간명하게 그 결실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다.

윤지당의 학문에는 퇴계·율곡의 철학이 조선 사회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모습이 담겨 있다.

❖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과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
그들이 존경받는 이유

퇴계와 율곡은 그들의 학문 활동을 통해 모든 인간이 '예의·염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고,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존재임을 밝혔다. 이들의 학설은 유교의 이상을 건국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왕조의 통치 체제를 든든하게 받쳐 주는 이론적 지주가 되었고, 그 가치관은 가난한 시골 마을의 풍속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



❖ 성리학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

-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물들은 이(理)와 기(氣)의 결합으로 생겨난 것.
 - ✓ 이(理): 자연 만물의 존재 원리. 모든 사물 속에 내재하여 그 사물의 본성을 이루는 것.
 - ✓ 기(氣): 이(理)의 이상을 현실 속의 존재로 형상화하는 데 필요한 질료와 에너지의 공급원.
- 그런데 이(理)는 순수한 원리인데 반해 기(氣)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고 불완전하며 무수한 차별성을 갖는 존재.
- 그렇기 때문에 이(理)와 기(氣)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자연만물은 형태와 성질이 다르며, 비교적 순수한 기를 얻어 만물의 영장이 된 인간들도 그 안에서 덕성의 차이를 갖게 된다.
- 인간은 완전한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의 차별성으로 인해 현실적인 우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리학적 인간관의 기본 전제

若理則只是箇淨潔空闊底世界，無形迹，他却不會造作；氣則能醞釀凝聚生物也。但有此氣，則理便在氣中。(朱熹, 『朱子語類』 권1 理氣上)

❖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

“도덕적인 감정인 사단(四端)은 인의예지의 본성으로부터 직접 발현되며, 몰가치적인 칠정(七情)은 외물이 형기에 감촉되어 발현된다.”

☞ 도덕적인 감정은 그 발현의 주체는 이(理)라고 하는 점, 바꿔 말해 이(理)가 감정발현의 주체가 되어 도덕적인 감정을 발현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

惻隱. 羞惡. 辭讓. 是非, 何從而發乎? 發於仁義禮智之性焉爾. 喜. 怒. 哀. 懼. 愛. 惡. 欲, 何從而發乎? 外物觸其形而動於中, 緣境而出焉爾. (李滉, 「答奇明彥非四端七情分理氣辯」, 『退溪集』 권16 書, 9b)

❖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기발리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발출하게 된다. 보는 순간 측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기의 작용이다. 그런데 그 때 그것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의 근원은 인(仁)이니 이것을 일컬어 이(理)가 거기(기의 발현)에 올라탔다고 하는 것이다.”

☞ 이(理)와 기(氣)의 역할을 구분하는 이기이원론의 틀 속에서 인간의 심리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 도덕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 토대의 중요성[이(理)의 가치 실현을 위한 토대로서의 기(氣)의 중요성]을 강조.

見孺子入井, 然後乃發惻隱之心. 見之而惻隱者氣也, 此所謂氣發也; 惻隱之本則仁也, 此所謂理乘之也. 非特人心爲然, 天地之化, 無非氣化而理乘之也. (李珥, 「答成浩原」, 『栗谷全書』 권10 書2, 5b)

❖ 울곡(栗谷)의 기발리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에 담긴 문제점

울곡 학설의 취약점: 기질(氣質)의 환경이 극도로 나쁜 경우[기질이 탁박해진 경우] 자발적인 도덕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農巖 金昌協(1651-1708)의 비판:

“울곡(栗谷) 선(善)은 맑은 기[淸氣]에서 발현하고, 악(惡)은 탁한 기(濁氣)에서 발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情]이 선하고 악하게 되는 원인을 기(氣)의 청탁(淸濁)에만 돌린다면 이(理)의 실체와 성(性)의 선함을 드러낼 길이 없게 될 것이다.”

栗谷人心道心說, 善者淸氣之發, 惡者濁氣之發 今若以善惡之情, 一歸之於氣之淸濁, 則恐無以見理之實體而性之爲善也. (金昌協, 「論退栗兩先生四端七情說」, 『農巖續集』 卷下說, 69a-70a)

❖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 1711~1788)의 기일원론(氣一元論)

“인간의 성품이 선한 것은 인간의 기질이 선하기 때문이다. 기질 밖에 따로 선한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人性之善, 乃氣質之善耳, 非氣質外別有善底性也. (任聖周, 「鹿廬雜識」, 『鹿門集』, 권19 雜著 5a)

- 녹문 임성주(윤지당의 친오빠)는 기(氣)의 차별성보다는 그 본래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기로 인해 구체화된 인간의 마음[心]은 그 속에 품고 있는 원리[理]와 다름 없이 순수하다고 하는 이론을 강력하게 제기.
- 녹문이 생각한 심(心)은 순수한 이(理)와 청탁(淸濁)이 섞여 있는 기(氣)가 합쳐진 2차적 존재가 아니라 이와 기를 구별할 필요가 없이 순수하면서 역동적인 하나의 실체.
- 녹문은 1원적인 심을 그의 철학의 중심에 두면서도, 이와 기를 일차적인 존재의 지위에 두고 그것으로 심을 설명하는 이기이원론적 사고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래서 사실상 ‘심’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기’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이(理)보다 기(氣)를 앞세운다는 오해를 받았다.

❖ 임윤지당(任允摯堂)의 정리

“성(性)이라고 하는 것은 심(心)이 갖추고 있는 이(理)이며, 심이라는 것은 성이 깃들여 있는 그릇이니, 이는 둘이면서 하나이다. 그러므로 텅 비고 신묘하며 그 변화를 헤아릴 수 없는 것[虛靈神明. 變化不測]은 심(心)이며, 텅 비고 신묘하며 그 변화를 헤아릴 수 없게 하는 원리는 이(理)이다. 이에선 작위 능력이 없지만 심에는 작위 능력이 있고, 이에선 드러나는 모습이 없지만 심에는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 이 없으면 발현할 것이 없고 심이 없으면 발현하게 할 수가 없다. 어찌 이기(理氣)가 서로 혼융한 마당에 성이 홀로 발현하고 심이 홀로 발현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夫性也者, 心之所具之理, 心也者, 性之所寓之器, 二而一者也. 故其虛靈神明變化不測者, 心也. 而所以能虛靈神明變化不測者, 理也. 理無爲而心有爲, 理無迹而心有迹. 非理無所發, 非心不能發. 安有以理氣之混融者, 而有性獨發心獨發之理乎哉? (任允摯堂, 『人心道心四端七情說』, 『允摯堂遺稿』上, 說.)

율곡(栗谷)

기(氣)가 없으면 발현하게 할 수가 없고, 이(理)가 없으면 발현할 것이 없다.

非氣則不能發，非理則無所發. (李珥, 「答成浩原附問書 壬申」, 『栗谷全書』 권10 書2.)

윤지당(允摯堂)

이(理)가 없으면 발현할 것이 없고 심(心)이 없으면 발현하게 할 수가 없다.

非理無所發。非心不能發。(任允摯堂, 「人心道心四端七情說」, 『允摯堂遺稿』上, 說.)

퇴계(退溪)

이(理)와 기(氣)에는 상호 발용함[互發]이 있고, 또 그 발용에는 서로 기다림[相須]이 있다.

蓋人之一身，理與氣合而生。故二者互有發用，而其發又相須也。(李滉, 「答奇明彦論四端七情」, 『退溪集』 권16 書, 30b)

윤지당(允摯堂)

이기(理氣)가 서로 혼융한데 어찌 성이 홀로 발현하고 심이 홀로 발현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安有以理氣之混融者。而有性獨發心獨發之理乎哉。(任允摯堂, 「人心道心四端七情說」, 『允摯堂遺稿』上, 說.)

❖ 임윤지당(任允摯堂) 철학의 의의

인간의 마음은 그 자체로 선하고, 환경의 제약 없이 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심선설(心善設)의 완성

성선(性善)



심선(心善)

인간의 본성은 이(理)이고, 그래서 선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간의 마음[心]은 기(氣)로 인해 약해질 수도 있다.

※ 맹자의 성선설을 성리학의 이기이원론으로 수용한 이론

이(理)와 기(氣)로 나눌 필요가 없는 인간의 마음[心]은 그 자체로 선하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누구나 선을 실천할 수 있다.

※ 성리학적 성선론의 문제점을 극복